

## 한국특허제도와 발명장려운동(3)

이 글은 1988년 특허청에서 발간한 한국특허제도사중의 한부분으로서 88년도에 나온 글을 뒤늦게 게재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게재년도가 틀리다고 해서 이미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바뀔리 없다는 생각과 특허출원 20만건 돌파라는 신기원을 세운 우리 특허도양에서 뿌리는 어느정도 튼튼히 박혀 있는지, 발명장려를 위한 운동은 과연 어느정도 이루어졌고 효과는 어느정도였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지기에 한국특허제도의 여명과 발명장려운동을 나누어 게재한다. <편집자 주>

### 머 리 말

1871년 신미양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세계열강들은 이 조의 정치적 불안정을 틈타 그들이 새로이 개발한 근대과학기술을 과시하면서 그것을 앞장세워 한국의 문호개방을 요구했다. 이로써 외국과의 통상이 시작되고 오래 동안 우리것만 알고 폐쇄되었던 한국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서양의 새로

운 문명이 수입되면서 우리 조상들은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이용해 보지도 못한 채 우리의 고유한 과학적 전통을 계승시키는 것조차도 잊고 실험과학의 결과와 산업기술의 소산들 앞에 넋을 잃고 말았다. 우리 민족은 이 때부터 일본의 군사기술을 익히거나 기술견학단, 신사유람단이 파견되는 등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기술을 익히게 되는 자아의 노력이 시작

되었다. 급기야는 1882년에 한·미수호통상조약, 한·영수호통상조약, 한·독수호통상조약, 한·일수호조규속약이 차례로 체결되고 다음해에는 인천항이 개항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선각자들은 민중을 계몽하는데 앞장 섰으며,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을 소개하는 등 과학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또 유길준이 일본에서 쓴 「서유견문」도 과학사상을 계몽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다. 1882년에 지식영의 특허제도 시행상소에 이어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은 1897년부터 농공육성책의 필요성과 특허제도의 실시를 건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자각이 일고 있던 시기에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조인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통감정치를 실시하여 외교권

등이 상실되고 1907년에 이등 박문은 통감자격으로 한국에 특허법시행을 제의하자 1908년부터 일본의 특허제도가 뿌리를 내리면서 모든 제도가 일본 제도로 변화해 갔다.

일본의 침략은 급기야 1910년 「한·일합방」이라는 비극을 초래하여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과학기술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일본의 한국의 강점은 청을 한국에서 몰아내고 러시아까지 세력을 뺏치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침략은 한국에서 개화 이후 겨우 싹트기 시작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기운마저 없애고 자원의 수탈로 산업도 파산되고 말았다. 일본의 침략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때 선각자들은 언젠가 독립이 될 것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운동성과를 위해서는 민족의 문맹을 퇴치해야겠다는 것이 급선무이었다.

1920년 평양, 1923년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각각 창립하여 국산품 애용운동도 민족운동으로서 문맹퇴치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과학기술 정책에 회의를 느끼고 온갖 차별적인 대우에 불만을 나타낸 우

리 선각자들은 1924년에 발명 학회를 설립하여 우리 민족에게 발명을 장려하고 과학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때 이루어진 발명장려운동은 독립운동이나 정치적인 모임과는 성격이 달라 비교적 일본인들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영역까지는 그 활동범위가 넓었다고 할 수 있다.

발명학회는 주로 발명장려와 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일이 주업무이었지만 문맹퇴치운동까지 하는 일종의 민족운동으로 승화시킨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것이 곧 「과학데이」를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과학지식보급회를 설립하는 설립자가 되었던 것이다.

과학지식보급회는 전국적인 과학운동의 전개기관으로서 그 대상이 어린이, 주부, 학생, 일반인 모든 계층에서 과학을 계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1945년 해방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권리를 보존케 하는데 기여했으며 과학기술의 계속성 유지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발명학회의 설립은 고려, 신라시대에서부터 이어온 민족의 발명정신을 계승해 오게하는 역할도 했다고 할 것이다.

## 언론활동과 의식의 전환

일본의 한국에서의 과학기술정책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통감정치가 실시되자 모든 제도는 일본의 것을 실시하면서 형식만 빌어 한국에 실시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 1910년에 소위 「한·일 합방」이라는 역사적인 비극의 초래로 공업소유권제도도 통감정치에 의한 형식조차도 밟을 필요 없이 일본의 제도가 바로 우리나라의 그것이 되었다.

이러한 숨막히는 정치적 변화 속에서 일제는 우리를 묶었고 36년이라는 식민지통치가 계속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나쁜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에 관해서는 더욱 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과학기술을 과소평가하게 했던 것이다. 일본의 문화나 과학기술이 과거 우리의 찬란한 역사에서 터득한 그 기술을 매개로 일본의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도 선진국의 기술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 전통적인 기술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우리의 과학수준은 싹트기 시작

한 신문물조차 그 운동을 없애 버림으로써 우리의 과학수준은 40여년간 발달하지 못하고 선진국이나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교통과 통신까지도 장악하면서 경제적 침탈의 도구로 삼아 자원을 고갈시키고 산업을 파탄에 빠지게 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한국의 값싼 노동력과 전력을 이용하여 주변국의 침략에 이용하는 등 그들의 정책을 변화시켰으며, 1930년대에는 더욱 이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을 병참기지화 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과학기술교육도 식민지 정책을 고수하여 경성제국대학에 과학에 관한 학과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 그 예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이 증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의도적인 과학기술정책은 1945년 해방이 되고 일본이 물러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여실히 이를 증명하고 있다.

### 3.1운동 이후의 신문의 계몽운동

일본의 교활한 정책이 과학

기술정책에서도 있다. 우리 민족은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때를 같이하여 자각하게 되었다. 1920년부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민족지가 창간하게 되자 사회요소요소에서 자주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들 민족지는 공업, 과학,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발명학회가 설립되어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게 되었다.

그 당시의 우리나라 민족은 서양문물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 배운것도 없었고 생활고 조차도 몰랐던 것이다. 그들 서구문화의 수입으로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한 우리민족은 가재를 문화생활 때문에 탕진해 버리고 부지부식간에 탕진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고 그후의 생활은 궁핍 그것뿐이었다. 그 당시의 발명학회가 발간한 「과학조선」에서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 사회에 있어서 소수의 신진인사가 선발대가 되어 사회구급정책을 위하여 무슨 단체도 조직해 보고 혹은 언론기관도 만들어 보고 혹은 정치적 해방을 부르짖기도 하고 혹은 종교적 관념을 고취하여 오며 혹은 몇몇 공업회사도 설립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미

미한 수단방법으로는 이 조선사회가 다른 사회와 같이 동향하는 지위로 매진하기에는 너무도 요원한 감이 있다.

이 때를 당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책으로 천혜의 자원을 이용하여 우리의 일용물과 문물제도를 우리 스스로 자작자급하며 우리의 생활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는 수단방법을 고려하여 우리의 발명가를 지도 원조하며 일반인 사에게 발명적 정신을 고조하여 아득한 앞길의 행로를 밝히는 책임을 자부하고 받기된 발명학회에서 그 주장 그 포부를 절규하고자 이 잡지 「과학조선」을 창간하게 되었다.

이 내용은 「과학조선」의 창간사이었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을 잘 나타내 주고 있고 무엇이 당시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인가를 역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대적인 상황과 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창간된 신문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민족지로 일컬어지는 이들 신문이 지향해야할 역사적 소명의식이 그동안 폐쇄되었다가 개화한 민족을 일깨우고 나아가서는 식민지 생활을 하는

민족의 자주성 회복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이들 신문은 민족갱생을 지향하는 대중운동인 발명장려운동과 과학보급운동을 역설하게 되었고 이 운동에 적극 협력했던 것이다. 우리 언론사를 통해 이 시대만큼 신문과 과학지식의 대중화 운동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었던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동아일보에는 특허출원에 필요한 명세서나 도면까지 게재되는 등 지면의 할애에서도 오늘날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신문들은 1934년 「과학데이」가 제정되어 기념행사를 할 때는 특집과 사설을 통해 그 당위성을 주장하고 계몽한 것이 절정에 달했는데 이들 신문들은 보도에서 지면할애뿐만 아니라 학예부를 통해 강연회를 지원하는가 하면 「과학데이」행사에 지금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신문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은 동아일보, 1934년 3월5일자 「과학데이 회와 그 사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학지식 보급의 필요성과 당시의 신문의 계몽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과거로부터 불행한 조선은 가장 비생산적이던 선비만을

존중할 줄 알았으며 가장 진보적이요 생산적이던 공업층을 천대하여 조선의 수공업은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도 그 수준이 자못 저열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갑자기 고급적이요 대량적인 기계생산품이 성내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자 다른나라 수공업자가 경험하던 비참보다도 더욱 비참한 경지로 떨어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 경제생활은 여지없이 몰락되어 버리고 말았으니 과학을 경시하고 공업을 적대하던 그 여화는 생각할수록 전랄할만한 것이다. 이제야 눈뜬 기업가는 뒤를 이어 사업을 일으키고 있으나 너무나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다가 기술적 결함이 또 그 사업의 침체 내지 실패의 중대요인이 되었은 즉 적어도 이것만은 자체의 노력으로 미봉치 않으면 안될 시급한 문제이다. - 중략 -

이에 「과학에 대하여 황무지인 조선을 과학화하자」란 모토 아래서 조직된 「과학데이 실행회」는 우선 동회에서 표방하는 모토가 얼마나 시의에 적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동회는 그 사업으로 과학데이를 실행하되 과학지식에 대한 강화, 활사회 등을 개최하며 기행례로 선전하고 중등정도 이상의

학생에게는 필요한 강연, 강좌 혹은 실험회를 개최하며 일반의 견학단을 모집하여 실지견학을 힘쓰고 사계 전문가가 모여 자연과학보급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또 방송을 하게 한다니 처음이요 또 경성에 국한하여 운동하는 사회의 사업인 만큼 분야밖으로 기대할 수는 없으되 경성에서의 이 선구적 운동이 성의있게 진전되기만 한다면 전세계적으로도 적지않은 충동을 줄 수 있을 것인즉 지방에서도 이 사업에 화응하는 단체가 뒤를 이어 일어나 이상에 말한 우리 자신의 지식적 결함을 어느 정도까지 채워줄 줄 믿는다. 이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는 동회의 출생을 축하하는 동시에 그 유종의 미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내용은 당시의 우리 민족이 처한 환경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발명학회가 제정한 「과학데이」기념행사를 앞두고 기사화되어 그 첫 기념식에서 8백명이 모이도록 하는데 이바지 했다. 또한 이들 민족지의 계도와 역사의식이 없었다면 발명학회의 활동이나 「과학데이」행사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계속> **발특 9612**